

20대 여성의 체형과 선호하는 디자인에 관한 연구

최인려[†] · 방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Study on the Young Women's Preference for the Apparel Design and Their Somatotype

In-Ryu Choi[†] and Hey-Kyong Bang

Dept. of Clothing, College of Human Ec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5. 11. 7. 접수; 2006. 6. 12.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type of young women's body and how young women perceived their body. What's the most favorable style of young women and how the degree of body satisfaction affect to choose their dresses.

This was find out how 123 young women with age 20 to 22, live in Seoul perceive their body and how their body perception or body satisfaction affect when they choose the clothing, and also what clothing style they prefer the most. And also how their body size was classified up to KS drop method.

All respondents are classified into 3 groups of somatotypes. N, H and A types are. N, H somatotype are bigger than A somatotype.

Their body perception was 3.65. They are satisfied feel comfort. They love very body conscious styles, tightly fitted style. Actually when they choose the right style, the somatotype was very important considerable variable. When the degree of body perception or body satisfaction is high, they are positive and easy to accept the current fashion.

Key words: somatotype, degree of satisfaction, favorable clothing style, actual chosen style, acceptability of the current fashion.

I. 서 론

의복은 신체의 보호나 장식의 목적으로 뿐 아니라, 신체의 불만족 부위의 보완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의복 착용 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고 싶어 하나 실제로 착용 시에는 자신의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재은과 남윤자¹⁾는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여 자신의 이상

* 이 논문은 200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조성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ichoi@sungshin.ac.kr

1) 정재은, 남윤자,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외류학회지* 23권 1호(1999), pp. 159-169.

형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현대 여성들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며 날씬한 신체를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기 신체와 이상적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Secord와 Jourard²⁾는 신체 만족도(Body Cathexis)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위에 대한 개인의 만족, 불만족의 느낌으로 이것은 인종과 성에 따라 다르고, 의복 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연희³⁾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행 선도력과 의복 만족도, 신체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유행 선도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복과 신체에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신체의 부위별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의 체형과 선호하는 의복 디자인과 실제 착용하는 의복디자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I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 1) 체형에 대한 분석과 만족도를 알아본다.
- 2)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과 체형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3) 착용하는 의복의 디자인과 체형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4) 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유행의 수용간 관계를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20~22세 사이의 여자 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15일에 걸쳐 신체 계측과 설문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신체 계측은 Martin의 직접 계측법과 KS A7003 및 KS A 7004에 준하여 키, 가슴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였다.

체형의 분류는 KS K051 드롭(Drop)치를 이용한 체형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그 구분 기준은 <표 1>과 같다. 신체 지수에 의한 분류는 Rohrer Index(R.I)와 Vervaeck Index(V.I) 2가지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신체 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판정 기준은 <표 2>에서 보여준다.

$$R.I = \text{몸무게(kg)} / \text{키}^3(\text{cm}) \times 10^7$$

$$V.I = \{ \text{가슴 둘레(cm)} + \text{몸무게(kg)} \} / \text{키(cm)} \times 100$$

연구대상에 대한 설문은 의복 스타일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리커트의 5점 척도법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표 1> 성인 여성의 체형 분류

키 체형	작은키 (155~165cm)	보통키 (165~175cm)	큰키 (175~185cm)
N Type (drop 6)	drop* 4~10cm	drop 4~12cm	drop 6~12cm
A Type (drop 12)	drop 10~14cm	drop 10~16cm	drop 12~18cm
H Type (drop 0)	drop -4~4cm	drop -1~6cm	drop 0~7cm

* Drop : 엉덩이 둘레와 가슴 둘레의 차이.

<표 2> 신체 지수에 의한 판정 기준

지수	구분	수칙	정상	비만
Vervaeck Index(V.I)		81.9 미만	82.0~94.2	94.3 이상
Rohrer Index(R.I)		129.0 미만	130.0~149.9	150.0 이상

2) P. F. Secord and S. 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No. 5 (1953), pp. 343-347.

3) 이연희,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표 3〉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와 본 연구와의 비교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본 연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0.0	5.0	162.7	4.6
가슴둘레	81.7	5.1	83.5	4.9
허리둘레	65.6	4.9	66.7	4.8
엉덩이둘레	89.2	4.4	88.8	4.3
몸무게	52.2	6.0	51.4	4.8

I점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MINITAB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 계측치의 분석

본 연구 대상자들의 측정 항목의 계측치를 국민표준 체위 조사 보고서와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계측 항목 신체 치수의 평균 값과 1997년 국민표준체위 보고서(18~24세)의 항목 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몸무게와 엉덩이 둘레를 제외한 항목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서울 지역의 123명에 국한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체형 분석과 만족도

1) 신체 지수에 의한 체형 분석

신체 지수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체형을 분류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을 Rohrer Index, Vervaeck Index

〈표 4〉 신체 지수에 의한 체형 분류 (단위:명)

지수 \ 분류	수척	정상	비만
Vervaeck Index(V.I)	58(47.2%)	59(47.9%)	6(4.9%)
Rohrer Index(R.I)	106(86.2%)	16(13%)	1(0.8%)

〈표 5〉 Drop에 의한 체형 분류 (단위 :명)

분류	N Type	H Type	Λ Type
인원수 (%)	67(54.4%)	46(37.4%)	10(8.2%)

의 2가지 신체 지수로 체형을 판정한 결과 Vervaeck Index를 기준으로 판정하면 수척 체형이 47.2%, 정상 체형이 47.9%이며 비만 체형은 4.9%로 나타났다. Rohrer Index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을 때 수척 체형이 86.2%로 큰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상 체형 13%, 비만 체형은 0.8%에 불과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민정, 마카베⁴⁾의 선행 연구에서 비만 체형의 비가 10% 미만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2) Drop에 의한 체형 분석

KS K051의 Drop에 의한 체형 분류에 따라 체형을 구분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체형을 엉덩이 둘레와 가슴 둘레의 차이인 Drop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N(보통체형)형 54.4%, H(가슴, 엉덩이 둘레가 비슷한 체형)형 37.4%, A(엉덩이가 큰 체형)형 8.2%로 나타났다.

이는 최인려, 방혜경⁵⁾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으며 정재은⁶⁾의 선행된 연구에서 나타나는 20대 여성들이 상반신보다 하반신이 더 낫다고 인식하여 자 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여성이 많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아는데 이는 본 연구가 한정된 인원에게 조사되어 이루어져 결과가 편중된 것이라 보여진다.

4) 성민정, 마카베 하루코,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3권 2호 (2004), pp. 81-92.

5) 최인려, 방혜경, “여자 대학생들의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지수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권 1호 (2000), pp. 123-131.

6) 정재은, 이순원,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1993), pp. 448-458.

〈표 6〉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 (단위 :명)

	몸에 붙는 실루엣의 스타일	스쿨 룩 (School look) 스타일	스포티 (Sporty)한 스타일	힙합(Hip Hop) 스타일
인원 수 (%)	90(73%)	27(22%)	5(4%)	1(1%)

〈표 7〉에 나타난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7로 보통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신체 만족도에 대한 선행된 연구들에서 실제 체형보다 자신의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보여졌다.

3.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과 체형간의 관계

연구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응답자의 73%가 몸에 붙는 실루엣을 가진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2%는 귀여운 느낌의 스쿨 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티한 스타일이나 힙합 스타일은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인희⁷⁾의 선행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깔끔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고 우아하고 여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적 이미지는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체형과 의복 디자인에 대한 리커트 평가

체형과 의복 디자인에 대한 각 문항들의 리커트 평가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 의복 디자인 선택 시 체형의 영향

의복 디자인 선택 시 체형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표 7), 체형이 미치는 영향 정도는 리커트 평가에서 평균 4.15로 의복 디자인을 선택할 때 본인의 체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체형과 의복 디자인에 대한 평가

변인	구분	빈도
의복 디자인 선택 시 본인의 체형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5 매우 많이 받음	39
	4 많이 받음	67
	3 보통임	13
	2 받지 않음	4
	1 매우 받지 않음	0
	M 4.15	
유행하는 디자인의 선호도	5 매우 선호함	3
	4 선호함	9
	3 보통임	26
	2 선호하지 않음	72
	1 매우 선호하지 않음	13
	M 2.33	
착용하는 의복과 체형의 관계 성도	5 매우 관계있음	18
	4 관계있음	68
	3 보통	26
	2 관계없음	10
	1 매우 관계없음	1
	M 3.75	
체형에 대한 만족도	5 매우 만족함	0
	4 만족함	5
	3 보통	38
	2 만족하지 않음	48
	1 매우 만족하지 않음	22
	M 2.37	

2) 유행하는 디자인 선호 정도

유행하는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표 7) 평균 2.33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3)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과 체형간의 관계

연구 대상자들이 즐겨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과 체형의 영향을 살펴보면(표 7), 리커트 평가에서 평균 3.75로 보통 이상으로 체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숙현 외⁸⁾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 하의의 착용 스타일이 체형 보완이 가능한 스타일로

7) 정인희, “여자 대학생의 의복 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2001), pp. 629-638.

8) 박숙현, 권미정, 이경림,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제2보)-팬츠와 스커트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권 4호 (2004), pp.511-528.

〈표 8〉 각 문항 간 상관 계수

문항	의복 디자인 선택 시 본인의 체형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유행하는 디자인의 선호도	작용하는 의복과 체형의 관계 정도
유행하는 디자인의 선호도	-0.527		
작용하는 의복과 체형의 관계 정도	0.887	-0.343	
체형에 대한 만족도	-0.650	0.866	-0.293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4) 체형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표 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리커트 평가에서 평균 2.37로 보통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 관점보다 비만하다고 인식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5. 리커트 평가 문항 간의 상관관계

체형과 의복 디자인에 대한 리커트 평가 문항 간의 상관 계수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의복 디자인 선택 시 체형의 영향 정도를 보여주는 항목과 착용하는 의복과 체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 간에는 상관계수 0.887로 높은 상관 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항목과 유행을 수용하는 정도에 대한 항목간의 상관계수는 0.866으로 체형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유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만족도가 높을수록 패션 트렌드의 수용에 적극적이라는 신수래, 류숙희⁹⁾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그 외의 항목들에서는 상관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서로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젊은 여성의 체형과 선호 스타일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인 20대 젊은 여성의 체형은 보통 체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엉덩이가 큰 체형의 비율은 낮았다. 또한 신체 지수에 의한 체형의 분석을 보면 수척 체형이거나 보통 체형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구 대상자가 서울 지역에 국한된 소수이기 때문에 편중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형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는 낮은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2.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과 체형 간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봄에 붙는 실루엣의 스타일에 높은 선호도를 보여, 체형이 드러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작용하는 의복 스타일은 체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착용 의복 스타일은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행 수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20대 젊은 여성들은 본인의 체형을 보완하면서도 유행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 업계에서도 현대 한국인의 체형에 적절하면서도 패션 트렌드가 잘 반영된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대상의 범위 내에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전체 젊은 여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제시되는 의복 스타일의 세분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9) 신수래, 류숙희,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패션 트렌드 수용도,” 복식문화연구 13권 2호 (2005), pp. 280-288.

참고문헌

- 박숙현, 권미정, 이경림 (2004). “신호스타일과 착용 스타일별 신체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제2보)-패츠와 스커트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권 4호.
- 성민정, 마카페 하부코 (2004).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3권 2호.
- 송병호, 이형숙, 김옥경 (2003). *스포츠웨어 생산*. 서울 : 교학연구사.
- 신수래, 류숙희 (2005).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패션 트렌드 수용도.” *복식문화연구* 13권 2호.
- 이연희 (1995).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숙,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소마토타입과 체형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1호.
- 정인희 (2001). “여자 대학생의 의복 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 정재은, 남운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 정재은,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 최인려, 방혜경 (2000). “여자 대학생들의 실제 신체 지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치수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권 1호.
- Secord, P. F. and S. M. Jourard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No. 5.